

내년 한국경제 기상도

소비·투자 동반 부진...성장 둔화

올해 경제성장률이 모처럼만에 5%대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다시 4% 중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신용카드 납입 등 인위적인 경기부양으로 심각한 신용대란 휴유증을 초래했던 2002년 거품효과로 7.0%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2005년까지는 계속 성장률이 5%에 미달했다.

5%를 밑도는 성장률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흡수 능력을 약화시켜 내수경기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정착을 어렵게 하기 때문

올해 경제가 저성장 구조로 고착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소비·투자·수출 증가세 동반 부진 = 내년 우리 경제는 수출이 그나마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유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비지출과 투자 등에서 전반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

연간 실업률 3.6%... 내수회복 걸림돌

환율 불투명...저성장 기조 고착화 우려

이다.

우선 내수경기의 핵심 민간소비는 4.0%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GDP 성장률에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 4.2%에도 미달하는 수준이다.

취업자수 증가세의 둔화와 함께 부동산 광풍에 눈덩이처럼 커진 가계 빚 때문에 채무부담이 커진 탓이다.

내년 설비투자 증가율 역시 올해 예상치 7.4%보다 낮은 6.0%로 전망됐다. 게다가 반도체를 비롯한 일부 첨단 업종의 투자편중 현상은 여전히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택건설 경기 부진으로 올해 성장률이 -0.7%로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되는 건설투자는 내년 1.6% 증가가 예상되지만 올해의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회복세가 극히 미약한 수준이다.

올해 20억달러로 균형수준을 이룰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균형수준이라고는 하지만 연간 20억달러 흑자라면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얼마든지 적자로 돌아설 수 있는 규모다.

상품수지 흑자는 300억달러로 예상된 반면 서비스·소득·경상이전수지 등의 부문에서 280억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

해외여행경비와 유학연수 비용 지출, 외국인 투자배당소득 이전, 증여성 송금 등이 적자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취약으로 인해 서비스수지 적자는 당분간 계속 악화될 전망이다.

<상승탄력의 회복 vs 저성장기조> 고착화 = 한은은 내년 상반기 성장률이 전기대비로 1.2%, 하반기에 1.3%를 나타내 성장곡선은 평탄한 국면에서 위쪽으로 좀 더 치고 나가는 모양을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징후 없어

닭고기값 진정세

지난달 28일 전북 익산시에서 두 번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발병이 확인된 뒤 7일째 추가 확산 징후가 없는 가운데 닭고기 가격이 점차 안정을 찾고 있다.

5일 농림부와 계육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1kg에 734원하던 닭고기 산지 가격은 29일과 30일 각각 677원, 653원으로 떨어졌으나 이달 1일에는 663원까지 회복했다.

계란 가격 역시 지난달 29일 801원(10개)에서 30일 787원, 이달 1일 782원 등으로 계속 하락세지만 하락 폭은 빠르게 줄고 있다. 농림부 등 방역당국은 전남 두 AI 발생 농장으로부터 반경 3km 안에서 사육된 76만4천마리의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 작업을 모두 마쳤다.

“경기조절정책 아직은 성급”

현정택 KDI원장 “복합 등 대외여건 대비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현정택 원장은 5일 “최근 국내 경기 지표들이 완만한 속도로 둔화되고 있지만 급리하나 재정지출 확대 등 적극적인 거시경제 정책을 사용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현 원장은 이날 증권선물거래소(KRX) 코스닥시장본부 주최로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2006 코스닥 상장법인 CEO 조찬세미나’에서 ‘한국경제의 현황과 경제정책방향’이란 주제로 행한 초청강연에서 “과거 경제상황이 어렵다고 인식될 때마다 규제정책의 완화 등으로 경제정책의 원칙을 훼손해 정책의 비효율성을 확대시킨 사례가 자주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 원장은 “수출은 여전히 두 자리 수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소비 및 투자 수요도 완만하나 증가하고 있는 데다 경상수지 흑자가 축소돼 국내 수요가 생산에 비해 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는 크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정책은 재정의 조기집행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합 문제, 미국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식차익 1,500억원 챙기고

아이칸, KT&G서 손 뺐다

칼 아이칸이 1천500억원 가량의 차익을 남기며 KT&G에서 손을 뗐다. 이에 따라 지난 2월3일 칼 아이칸 연합(Icahn Partners Master Fund LP, Icahn Partners LP, High River Limited Partnership)의 5% 이상 지분 취득 공시로 시작된 KT&G와의 경영권 분쟁은 10개월 여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그러나 ‘공개매수’ 등의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며 경영권을 장악하겠다는 주장과 달리 칼 아이칸은 결국 1년도 채 안 돼 이익을 실현하고 나가 전형적인 ‘먹튀’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5일 매각주관사인 씨티글로벌마켓증권에 따르면 이날 개장 전 시간의 대량매매를 통해 팔린 KT&G 주식 700만주(4.75%)의 대부분이 칼 아이칸 쪽 보유 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칼 아이칸은 4천225억원의 매각대금을 챙겼다. 지난해 9월28일부터 올해 1월9일까지 칼 아이칸이 KT&G 주식 776만주를 사들이는데 3천351억원 가량을 투자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매각으로 874억원의 차익을 주머니에 넣었다. 남은 80만주의 평가액을 이날 주가가 6만500원으로 계산할 경우, 484억원이 더해지게 돼 칼 아이칸의 묶은 1천358억원으로 늘어난다.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수출 3천억달러 달성을 기념하는 대국민 축하메시지에서 “수출 3천억달러는 수출 기업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국민의 성원 덕분에였다”며 “수출 5천억달러와 무역 1조달러 시대를 앞당겨 무역 8강을 실현하자”고 말했다.

을 직장인 최대이슈는 ‘집값’

적립식 펀드 등 ‘재테크 열풍’ 2위

올해 직장인들의 최대 이슈는 ‘집값,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재테크 열풍’인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이 자사 사이트 회원인 직장인 1천12명을 상대로 ‘2006년 10대 뉴스’를 고르는 복수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가장 많은 69.9%가 ‘집값·부동산 가격 상승’을 가장 화제가 된 뉴스로 꼽았다.

또 적립식 펀드나 CMA 통장 등을 이용한 ‘재테크 열풍’이 49.9%로 2위에 올라 주택이나 목돈 마련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뉴스들이 1-2위를 차지했다. 3위는 지난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일련의 ‘북핵 사태’(41.5%)로 조사됐으며 사행성 게임 열풍 등 ‘허다이야기’ 사건이 40.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38.1%)이 각각 4-5위로 뒤를 이었다.

6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결 초음이 800만여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대기업-중소기업 연봉 양극화’(31.5%)에 대한 기사가 차지했으며 7위는 ‘직장인 각종 스트레스 증가’(28.5%), 8위는 ‘직장인 자기개발 열풍’(26.6%)이었다.

이어 국회 금융기관의 청원경찰·운전기사 등이 6천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다는 ‘신인 내린 직장, 금융공기업’ 기사(21.7%)가 9위를, ‘4억 소녀’ 등 소규모 창업으로 수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사례가 화제가 된 ‘창업 열풍’(18.7%) 소식이 10위를 차지했다.

연말정산 공인인증서 발급 필수  
신용카드 공제율 15%로 하향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복급생활자들은 의료비나 보험료, 신용카드 등 8개 항목의 영수증을 안내도 되지만, 대신 공인인증서 발급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작년 20%에서 올해 15%로 조정됐고 의환선원을 제외한 국·북한·항공 근로자의 비과세 범위가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었다. 국제청은 5일 발표한 ‘2006년 연말정산 안내’에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공제자료를 수집해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본격 가동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보험료·의료비·교육비·직업훈련비·개인연금·연금저축·퇴직연금·신용카드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이중택 기자 jitee@kwangju.co.kr



아시아나항공-ANA '윈-윈'

5일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열린 아시아나항공-ANA(전 일본항공) 전략적 제휴, 전사적 확대 업무협약식에서 아시아나 항공 강주안 사장(오른쪽)과 ANA 아마토 미네오 사장이 악수하고 있다.

1964년 1억불 수출후 42년만에 달성...세계 11번째

수출 3,000억弗시대 열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1번째로 연간 수출 3천억달러를 돌파했다. 산업자원부는 5일 올해 들어 우리나라의 수출이 3천억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지난 4일까지 올해 수출이 2천990억3천만달러를 기록했고 하루 평균 수출이 11억8천만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이날 중 3천억달러를 확실하게 돌파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중국,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캐나다, 벨기에에 이어 11번째로

수출 3천억달러 고지를 밟는다. 수출 3천억달러 달성은 1964년 1억달러 달성이 42년이며 1977년 100억달러 달성 이후 29년, 1995년 1천억달러 달성 이후는 11년, 2004년 2천억달러 달성 이후는 2년만이다.

수출 100억달러를 돌파한 이후 3천억달러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우리나라에 앞서 수출 3천억달러 고지를 밟은 10개 국가와 비교하면 4번째로 짧다.

수출 2천억달러에서 3천억달러까지 걸린 기간은 2년으로 가장 빠르다.

3천억달러는 쏘나타(대당 2만1천400달러) 1천400대 또는 휴대전화(개당 175달러) 17억개를 팔아야 가능하고 우리 국민이 연간 내는 세금 총액 163조4천억원의 1.7배에 달하는 규모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원화 강세, 고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악조건 속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달성한 셈이다.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수출 3천억달러 달성을 기념하는 대국민 축하메시지에서 “수출 3천억달러는 수출 기업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국민의 성원 덕분에였다”며 “수출 5천억달러와 무역 1조달러 시대를 앞당겨 무역 8강을 실현하자”고 말했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주)와이비엔회사	홈콜 관리팀장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12/07	062-376-0509
씨에스켄(주)	[전남대학교 내] 관리, 경리, 회계직인 모집	초대졸/경력2년	1400~1600	12/08	062-530-0815
(주)인아소시에이츠 광주지사	광주 신세계 백화점 멤버십관리 사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12/08	011-1796-4814
(주)오리온	영업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09	062-373-2391
라이프리서치	시사종합지 뉴스라이프 = 취재기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12/09	062-263-1114
(주)대신테크	영업(남품)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800~2000	12/10	062-953-1310
H&T아웃소싱시스템	[SK텔레콤] 114 고객센터 모집 [주5일]	고졸/경력무관	1800~2000	12/11	062-350-6333
리모벤처 스튜디오	촬영기사, 촬영보조, 사진편집, 상담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1	062-384-8807
한빛경찰전문학원	고시학원 상담 관리 직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12/12	016-9654-2621
인포드림넷(주)	히나로텔레콤 고객센터 I/B 상담사 모집	고졸/경력무관	1800~2200	12/12	062-236-0217
삼룡산업(주)	경리업무, 영업(해외영업포함), 영업관리 사원 모집	고졸/경력3년	회사내규	12/13	062-652-2701
미스터관광호텔	프론트, 광고홍보, 조리부 사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4	010-9149-7083
(주)수호시스템	광주 신세계 백화점 보안팀 직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2/15	062-360-1112
코리아노무법인	사무, 총무, 노무법인 직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5	062-526-0006

(광주지프리카 512-6210 제공)

